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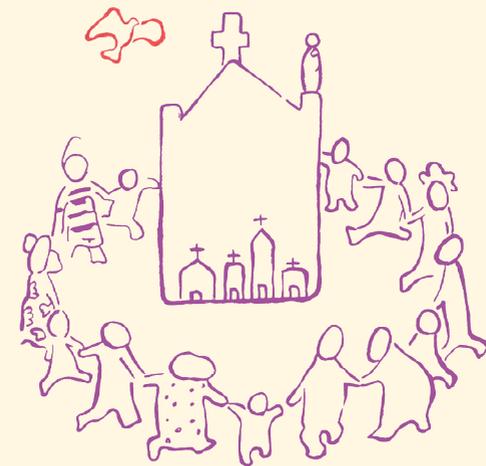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대림 제2주일(12월 9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1-6)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전하오리다.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2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이는 이사

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례자 요한의 설교(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묵상)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루카 3,4)

세상이라는 광야속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 5)

내 마음이 곧아지고 내 말을 평탄하게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말씀을 듣고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마음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 외침을 내 목소리를 과연 잘 들어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내가 외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바로 자기 반성 즉 회개입니다. 내 삶이 올바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외쳐봤자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리에 불구합니다.

둘째는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얼마나 기울였는가? 잘 들어주었는가?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려 할 때 무심결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나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말을 듣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묵상해봅니다. 나의 말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처럼 나 자신에게 먼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인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외쳐대지 않아도 사람들과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 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대림 제3주일 (12월 16일)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장 “주하느님 크시도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전하오리다.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

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오마리아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묵상)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루카 3, 18)

지난 한 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혹은 기쁨을 준 삶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길을 가다보면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 태풍이 지나간 후 산사태와 홍수가 나고 엄청난 자연적 재앙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재앙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느님이 이러한 세계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이 만든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실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은총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느님을 거역했을 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어둠이 만연하게 되고 갈수록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느님과의 단절이라는 굳건한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 21-22)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혀버린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문이다”(요한 10,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준비하는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죄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하늘문을 굳게 닫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 21)라고 하시며 지극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 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92장 “구세주 내 주 천주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작지만 아름답고 포근한 본당

-지세포본당 구역부장 서미순(보나)-

지세포본당은 올해로 본당설립 26주년을 맞이한 반어촌, 반농촌 본당으로 관광객 신자를 포함 해 약 200명 정도가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본당 건너편에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성당의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우리 본당 신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겨자씨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희 본당은 현재 8개의 소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장이 반장을 겸하고 있고, 이분들을 주축으로 한 달에 한 번 가정에 모여 기도 드리고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토닥입니다. 또 보살펴 드려야 하는 분이 계시면 도와드리고, 적은 액수지만 회비를 모아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본당 실정상 젊은 분들이 적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 일 할 사람이 없어 매번 걱정부터 앞서지만, 소공동체 반장님들이 '성당일은 시작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도 우리 선조들은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소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미사를 청하면 구역미사를 해주십니다.

거제를 찾으시는 관광객 가운데 많은 신자분들이 본당을 찾으십니다. 오시는 분마다 성전이 참으로 아담하고 아름답다며 말씀해 주시지만 26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건물도 노후화 되어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아, 지난 10월에는 이틀에 걸쳐 본당의 날 행사로 성전 보수 기금 마련 바자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반원들과 반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정성으로 기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마산 교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전을 가꾸고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사목에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란 무엇인가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복음 나누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복음의 실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영적으로 성장할 때 신앙이 심화되며 자신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아듣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 나누기를 통해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찢개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찢개어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5-16)”

- 「소공동체 봉사자교육 1단계」(수원교구 복음화국 소공동체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마산교구 신앙대학 제26기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가톨릭 신학과 철학, 영성을 바탕으로 평신도 신앙인의 자질 함양과 세상의 복음화 및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신앙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앙대학 제26기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세상의 복음화와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평신도
- 지원자격 :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만 65세 이하)
- 교육기간 : 2년 과정(1월과 8월은 방학)
매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주일 오후 4시(1박2일)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교 과 목 :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회론, 영성신학, 윤리신학, 그리스도론, 성령론·마리아론, 성사와 전례, 교회법, 교회사, 사회교리, 철학
- 등 록 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0,000, 4인실: 420,000)
- 모집인원 : 60명(선착순)
- 졸업특혜 :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지원방법 : 소정의 입학 양식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입학양식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 지원마감 : 2018년 12월 28일(금)까지
- 보내실곳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 기타문의 : 사목국 055)249-7021~3